캄보디아 뽀디봉 마을에서 온 편지 ⑥

다시 손에 쥔 조각도



전쟁으로 중단됐던 수레꾼 공예학교 목공반이 다시 문을 열었다. 전쟁으로 떠난 선생님과의 인연을 뒤로하고, 아이들은 새로운 선생님과 함께 다시 조각도를 손에 쥐었다.

전쟁으로 흩어졌던 수레꾼 공예학교 목공반 아이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처음 다섯 명으로 시작했던 목공반은 안타깝게도 '빤야'의 가족이 귀환하지 못해 네 명이 됐습니다. 그 사이 '다님'과 '쎄서'는 중학생이 됐고, '뿌찌까'와 '로떠나'도 가을 새 학기가 시작되면 수레꾼 중학교로 진학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거친 시간을 지나는 동안, 아이들은 어느새 한 걸음 더 성숙해졌습니다.

수레꾼 공예학교는 나무로 불상을 조성하고자 하는 발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국경의 오지 마을에서 훌륭한 조각가를 만나는 인연은 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학교 건물을 짓는 동안 한 조각가와 인연이 닿아 목공 선생으로 모시기로 약속을 받았으나, 건물이 완성되기도 전에 그는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떠나 버렸습니다. 또 다른 조각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는 끝내 마음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여러 인연이 스쳐 지나간 끝에, 마침내 한 젊은 조각가를 만나 주말마다 두 시간씩 조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지난해 5월의 일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의 손끝은 놀라울 만큼 세밀해졌습니다. 평면 조각에서 시작해 입체의 형상을 만들어 내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만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작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친 전쟁은 배움의 흐름을 끊어 놓았고, 아이들을 가르치던 선생님마저 두 번째 전쟁 이후 피난길에 올라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무너져 버린 듯했습니다. 국경 마을에 살고 있는 이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 전쟁은 깊은 상처를 남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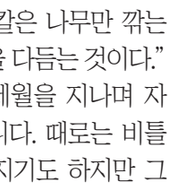
"네가 가진 조각칼은 나무만 깎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듬는 것이다."

나무는 무수한 세월을 지나며 자신만의 결을 만듭니다. 때로는 비틀리고, 때로는 갈라지기도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쌓여 하나의 무늬가 됩니다.

아이들의 삶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전쟁은 이렇듯 많은 것을 무너뜨리고 있지만, 아이들의 손끝에서 자라나는 미래의 가능성까지 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어렵게 맺었던 첫 번째 선생님과의 인연은 비록 여기까지였지만, 다행히 새로운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손은 새로운 조각가 선생님과의 인연으로 다시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조각 솜씨가 날로 늘어나, 자신들과 같은 상처를 지닌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배움의 길이 흔들림 없이 계속 이어지기를 발원해 봅니다. 전쟁으로 끊어진 시간도, 가난으로 멈춰버린 시간도, 누가 대신 이어 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시환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대표

사찰음식에 마음을 담다 ③ 정월대보름, 사찰음식에 담긴 원만의 공양

수행자 발원과 대중 화합 담아내

음력 정월 보름,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떠오르는 날인 정월대보름은 풍요와 화합을 기원하는 세시 명절이다. 산문을 여는 이른 새벽, 둥근 달빛이 도량을 비추면 사찰의 공양간에는 고요한 정성이 흐른다. 이날의 상차림은 단순한 절기 음식이 아니라, 수행자의 발원과 대중의 화합을 담아내는 수행의 밥상이다. 사찰에서의 공양은 배를 채우는 일이기보다 마음을 살피는 일에 가깝다. 한 숟가락의 밥과 한 젓가락의 나물 속에도 자연의 이치와 수행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내가 머무는 마을에는 홀로 수행하시는 한 스님이 계신다. 소박한 마당에는 스님께서 산과 냇가에서 모아 온 돌들이 정갈히 놓여 있어 작은 전시를 이룬다.

지인들과 함께 찾아 뵐 때면 스님께서는 늘 따뜻하게 맞아 주시고, 우리는 마당의 돌을 하나하나 둘러보며 그 결을 이야기 삼는다. 둥글게 닳은 조약돌을 손에 올려놓고 세월의 흔적을 듣다 보면 마음 또한 한결 부드러워진다. 돌 하나에도 흐르는 시간이 담겨 있듯, 사람의 마음도 세월 속에서 조금씩 다듬어지는 것임을 새삼 느끼게 된다.

정성껏 우린 좋은 차를 나누며 스님과 차담(茶談)을 나누는 시간도 더없이 맑고 깊다. 차향이 은은히 번지는 가운데 나누는 담소는 번다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고, 보름달처럼 둥근 평안을 안겨 준다. 말이 많지 않아도 차 한 잔 사이에 흐르는 고요한 기운 속에서 서로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렇게 나누는 차 한 잔은 수행의 또 다른 공양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서로 다른 기운 조화 상징인 오곡밥
다름 품는 인연 이치 닮은 묵은 나물
보름달 원만함 품고 마음 밝히는 수행

대보름 공양의 중심에는 오곡밥이 있다. 찹쌀·수수·조·팥·콩을 한데 섞어 지은 밥은 서로 다른 기운이 조화를 이루는 상징이다.

묵은 나물도 빠질 수 없다. 시래기와 고사리, 호박고지, 토란대, 고구마 순, 박나물, 취나물을 정갈히 불려 삶아 참기름과 들기름, 들깻가루로 담백하게 담아낸다. 서로 다른 향과 식감이 한 상에서 어우러지는 모습은 인연의 이치를 닮았다. 각기 다른 재료들이 한데 모여 조화를 이루듯, 사람 또한 서로의 다름을 품으며 살아갈 때 비로소 원만한 삶을 이루게 된다.

상 위에는 약식도 오른다. 찹쌀에 밤과 잣을 얹고 계피와 대추를 오래 달여 만든 대추고를 더해 깊은 빛과 향을 살린다. 절제된 단맛 속에는 한 해의 삶이 서로에게 약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다. 자연이 내어 준 재료를 정성으로 다듬어 공양으로 올리는 과정 자체가 이미 수행의 한 모습이기도 하다.

그리고 정월대보름의 풍속인 부럼도 빠지지 않는다. 이른 아침, 호두와 밤, 땅콩 같은 견과를 깨물며 한 해의 무탈을 기원한다. 단단한 껍질이 갈라지는 소리는 액운을 물리치고 복을 부르는 상징처럼 울린다. 스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신다.

"부럼을 깨듯 마음의 번뇌도 시원히 놓아 버리십시오."

그 말씀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둥근 달을 떠올린다. 번뇌와 걱정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삶은 조금 더 가벼워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정월대보름의 사찰음식은 배를 채우는 데 그치지 않는다. 오곡밥과 묵은 나물, 약식과 부럼, 그리고 차 한잔의 온기가 서로 어우러져 사람과 사람을 이어 준다.

마당의 돌처럼 모난 마음을 다듬고, 둥근 달처럼 원만해지기를 서원하는 날. 그렇게 사찰의 대보름은 음식과 차담, 그리고 인연 속에서 조용히 깊어가고 있다. 둥근 달이 밤하늘을 환히 밝히듯, 대보름의 공양 또한 우리의 마음을 밝히며 한 해의 길을 따뜻하게 비추어 준다.



황수경
루미에르드포레 CEO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⑪ 한암 스님의 법신 사리

하늘빛과 산빛 가운데 가장 고운 빛만 문수전 꽃살문에 스며든 듯하다. 문수전 추녀 아래로 오대산 줄기가 안겨 들었다. 어디 한 군데 모난 구석이 없다. 이 모습이 오대산을 '문수성지'로 만들었다.

자장 스님이 당나라 오대산 태화지 옆 문수보살상 앞에서 기도할 때 문수보살로부터 "그대의 나라 동북방 명주 경계에 오대산이 있다. 1만 문수보살이 항상 머물러 있으니 가서 뵙도록 하라"는 부촉을 받았다. 이리하여 오대산 산문이 열렸다. 신라 사람들은 오대산을 〈화엄경〉 '보살주처품'에서 "문수보살이 1만 권속을 거느리고 살면서 법을 설한다"고 한 청량산으로 비정했다. 신문왕의 두 아들 보천과 효명이 오대산에 각기 암자를 짓고 도업을 닦았다. 훗날 효명은 성덕왕이 돼 태자 시절 1만 문수보살의 진신을 만난 중대 진여원을 고쳐 짓고 문수보살상을 모셨다. 이 절이 오늘의 상원사다.

상원사는 한암 스님이 입적할 때까지 27년간 주석했던 도량이다. 6·25전쟁 때 1·4후퇴를 하루 앞두고 후퇴하던 국군이 상원사를 불태우려 하자 한암 스님은 "함께 태우라"며 가부좌를 틀었다. 이로써 상원사가 지켜졌다. 선정에서 나온 지혜의 빛이 전장의 화염을 거두어 안은 것이다. 문수전 문살에 핀 꽃. 한암 스님의 법신 사리다.

손영자 작가



상원사 문수전.

